

해양부, 항만건설공사 조기발주키로

(2001. 1. 2)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2001년 항만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침체국면에 있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금년도 항만시설물량의 63%에 해당하는 58건 4,74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1/4분기안에 모두 집행키로 했다. 해양부의 금년도 신항만 및 일반항 건설공사는 총 84건 7,509억원 규모로 이번 조기발주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26건(2,768억원 규모)의 공사도 설계 및 발주요청을 앞당겨 상반기안에 업체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의 경우 2개 신규공사와 3개 공사를 조기발주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사업예산 853억 8,000만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군산청은 장항항 안벽등 7건의 항만 관련공사를 조기 추진키로 하고 사업비 788억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포항청은 영일만신항 기반시설 등 5개 관할 항만 시설건설에 724억 3,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이기로 했다. 또 울산청은 6건, 632억 8,000만원 여수청은 455억 6,000만원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목포청은 317억 8,000만원, 제주청과 대산청은 390억원의 사업비를 들이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청은 417억원으로 아산항 서부두, 외곽호안등 4건의 계속공사와 신규사업인 접근항로 암초제거공사를 조기 추진키로 했으며 마산청과 동해청은 삼천포항, 묵호항, 속초항등 5개 관할 항만의 기반시설 건설에 160억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건설업 및 주택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2001. 1. 5)

건설교통부는 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지방건설업 및 주택건설 활성화 관련 주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계획에서 부산을 비롯한 6개 지방도시에 2,236만평 규모의 신시

가지를 개발키로 하고 1단계로 우선 오는 2006년까지 1,041만평을 조성키로 했다. 이들 6개 지방신시가지 개발사업에는 1단계에만 모두 10조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동부산권(150만평) 및 서부산권(250만평)의 경우 올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대구달성 신시가지(170만평, 1단계 88만평)도 올해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전 서남부(274만평, 1단계 132만평)는 지난해말 이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연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안(888만평, 1단계 58만평)신시가지는 올해중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하고 목포남약(447만평, 1단계 275만평)지구는 상반기중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했으며 전주(87만평)는 상반기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세아, 미디어사업 본격 추진

(2001. 1. 5)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6월 신규설립한 법인「에이랩(A-Lab)」을 통해 멀티 미디어 광고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이랩은 아세아시멘트의 신규사업을 담당하는 인큐베이팅 회사로 자본금 50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신규사업진출을 위해 지하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지하철방송과 광고사업을 하는 미디어사업부를 지난해 설립한 바 있다. 올해 에이랩이 새롭게 시작할 사업은 서울지하철 1~3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사업. 지하철 구내와 차량안에 뉴스와 광고를 이용, 고객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멀티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석 기획팀장은 “지하철 이용객 숫자가 1,0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첨단매체와 광고를 결합할 경우 광고노

출 효과의 양과 질 면에서 뛰어나다”며 “지난달 6호선 개통기념 문화이벤트인 ‘디지털여행’에 LCD 영상게시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에이랩은 차세대 검색엔진 ‘하이스텝’과 e-비즈니스 관련 핵심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에이랩은 인력을 확보하고 솔루션연구소의 운영에 들어갔다. 유팀장은 “올해는 에이랩을 통해 핵심전자부품 소재 디지털요소기술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아세아시멘트가 고부가가치 사업에서 입지를 굳히는 것이 경영진의 목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는 올해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사업을 도입한다. 우선 약 20만톤의 부산물과 산업폐기물을 시멘트연료와 원료로 대체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늘려 2004년에는 연간 약 50만톤의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한일, 폐광 채움용 특수공법 특허 획득 (2001. 1. 11)

한일시멘트는 특수 몰탈을 사용하여 폐광 등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채워 지반을 강화시켜 주는 공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폐광이나 폐하수관 등 지하 빈 공간을 일반 시멘트에 비해 최고 8배까지 가벼운 경량 기포 몰탈을 사용하여 채운 다음 지반을 강화시켜주는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오직 한일시멘트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명 FIRM(Foam Injected Ready-Mixed Mortar) 공법으로도 불리우는 이 공법은 시멘트와 모래, 각종 혼합제가 섞여진 특수 시멘트를 현장에 운반하여 전용 장비를 통해 기포를 주입시킨 다음 고압펌프로 빈 공간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강도나 무게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지반 내 빈 공간을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매꾸어 왔으나 콘크리트의 무게로 인해 오히려 지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경량 기포 몰탈을 사용한 본 공법을 이용하면 콘크리트 무

게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반이 강화되고 차음 및 흡음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일측은 이미 '98년도에 경부고속철도 조남터널 상부의 폐광 채움을 성공적으로 시공했으며, '99년과 2000년에는 경상남도 지역 대형 교량 이음쇄 하부에 발생한 동공부를 이 공법을 사용하여 지반을 강화하는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한일시멘트는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SOC 공사시에 발견되는 폐광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수도권 2~3개 신도시 건설키로 (2001. 1. 19)

이한동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실태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도권내 2~3개의 친환경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시화북측 간석지 323만평을 개발, 공장·상업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천안 등 지방의 6개 거점도시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시가지 건설하고 3개년계획을 수립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전자정부구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를 확대해 78억원 이하의 공사와 2억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별 SOC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도서·오지·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많이 쓰는 공장 못짓는다 (2001. 1. 28)

에너지 다소비형 기업은 앞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때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계획을 마련, 반드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는 신규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 상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과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장시설 등을 신·증설하는 기업체가 산자부장관과 미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98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모두에 적용됐으나 정부가 1999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삭제했었다. 산자부는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만 TOE(석유환산t)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화학섬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2백여개 사업장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1만TOE를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이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7개업종 자율구조조정 원칙 합의

(2001. 1. 31)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석유화학, 화섬, 면방, 시멘트, 농기계, 전기로, 제지 등 7개 업종 단체는 31일 오후 4시 과천 호프호텔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산업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했다. 업종단체 대표들은 회의에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생산·판매·원료조달·기술개발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량 감축과 시설 조정 등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특히 과거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을 배제하고 자율적이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조했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7개 업종의 구조조정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

해 주주들의 이익을 증시하면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과거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수익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업종별 협의회 등이 만들어지면 필요할 경우 회의에 참석, 업계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사업교환이나 설비 감축에 필요한 세제 감면, 해외 공동마케팅 구축, 공동 물류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보수자재 중동 진출

(2001. 2. 17)

국내 콘크리트 보수보강기술이 중동에 간다. 알씨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건설업체인 유나이티드 이스턴그룹(UEG)에 자체개발한 콘크리트 보수·보강공법과 자재를 3년간 최대 1억달러 규모까지 공급키로 계약했다고 16일 밝혔다. UEG는 알씨시스템의 중동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며 페르시아만 지역의 해안 구조물을 비롯, 중동지역 교량 등 노후화된 건축물의 보수·보강에 알씨시스템의 기술과 자재를 사용한다. 이번에 이회사가 수출하는 기술은 최근 산자부로부터 신기술지정을 받은 「스테인레스 스틸와이어 매쉬와 침투성 폴리머 몰탈(RC-A0401)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으로 관련자재를 사용할 때 이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KDI, 정부 주택정책 현실대응 미흡 지적

(2001. 2. 23)

정부의 주택정책이 과거 개발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현재의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토지이용, 인구분산에 관한 정부의 규제들은 제한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조장,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임길진 KDI 국제정책대

학원 원장은 2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주택 정책의 과제와 공기업의 역할」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개별 주택소비자들이 경제력에 따라 불법임차인에서 정규주택소유자에 이르기까지 8단계의 시장을 거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이 각 단계별 시장의 흐름을 파악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규제위주의 정책을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어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돼 왔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따라서 정부가 기존의 제한된 시각에서 탈피, 단계별 부분시장들을 통찰하는 한편 국방비등 다른 배분활동과 비교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진정한 국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주택부문으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임 원장은 또 저소득층들이 주택 시장에서 상승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저리 금융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술혁신에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주택기술드라이브의 정책개발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25만가구 건설키로

(2001. 2. 26)

건교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안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올해 준농림지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건설비중을 늘려 작년보다 11만가구 많은 25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올 전체 주택건설물량을 민간부문 25만가구를 합쳐 모두 50만가구로 잡고 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25만가구중 60%인 15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으며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주택도 1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올해 지난해보다 30%정도 늘어난 28조 7,102억원을 공공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집중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19조 3,928억원을

조성, 이중 11조 1,338억원을 공공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정부재정에서 2,364억원을 투입, 국민임대주택 신규사업 1만5천가구 및 계속사업 3만3천가구의 건설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중 임대주택건설 15만가구 건설에 3조 1,837억원을 지원하고 분양주택건설 10만가구에 1조 7,561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량사업에 1조 5,00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은행등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민영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17조 3,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북 SOC투자 확대되야

(2001. 3. 8)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남한의 1990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10년동안 72조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발전설비 등 북한의 SOC 규모는 남한의 1975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북 SOC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72조 5,75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북한의 SOC수준을 남한의 1990년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발전량이 시간당 170억KW로 남한의 7.9%수준에 그치고 있는 북한의 발전설비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동안 10조 4,3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각종 산업단지 개발에 14조4,5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장률이 10% 미만에 그칠 정도로 낙후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27조 3,870억원의 건설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항만건설과 시설확충에도 13조 3,440억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건산연은 내다봤다. 다만 철도는 전철화율이 79%에 달하는 등 다른 교통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망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동안 6조 9,6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산연은 남

북경협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를 동북아시아지역의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시키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 SOC투자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의 강구와 함께 국내 건설업체의 북한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부처 SOC내년예산 25조원 요구 (2001. 3. 10)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건교부와 교육부 등 36개 중앙관서가 508개 주요 계속사업과 594개 신규사업 등 모두 1,10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요구한 예산은 모두 86조 3,000억원으로 이중 기간국도 건설(9차)과 경부고속철도건설등 SOC예산 요구액은 올해(14조 4,000억원)보다 73.6% 늘어난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등이 예산을 요구한 주요 계속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 지원 1조 800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원 8,517억원, 호남선 전철화사업 4,350억원,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 4,611억원, 무안공항건설 518억원,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지하철건설 지원 1조 9,671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3,68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억원 등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SOC투자예산 규모가 적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이어야 물류비증가 등에 따른 국내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며 SOC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예산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틸하우스 보급확대 (2001. 3. 12)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틸하우스 건설은 활기를 띠고 있다. 포항제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스틸하우스공

법을 적용해 건설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은 3,700여 세대로 전년에 비해 무려 600%나 증가했다. 부문별 건립세대수는 아파트가 3,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주택 600가구, 스틸빌라 10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틸하우스공법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학교, 군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철골조 학교 10개동, 군시설물 40개동,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8개동이 각각 건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포철과 관련업계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스틸하우스 물량이 내년에는 10,000가구, 2005년에는 17,0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내후성강을 비롯한 텍플레이트 지붕재와 천정재 등 강건축재의 사용량도 연간 20만톤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포철은 스틸하우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품질·시공관리에 나서는 한편 비내력벽 적용활동 강화, 원가절감 방안 강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등과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2001. 3. 16)

정부는 16일 최근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전·월세 서민에 대해 용자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시 영세민에 대한 연 3% 저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가 4월부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국민주택기금 7.5~9% → 7~7.5%)하는 등 주택구입시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소형 공공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하고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발표는 IMF 이후 급락했던 주택 전세가격이 '99년초를

계기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최근 은행대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늘어나, 전세부족과 월세고금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철강재 수요전망 '적신호'

(2001. 3. 19)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 철강재 내수는 2분기부터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해 지난해(3,844만 1,000톤)보다 3.8% 감소한 3,696만 4,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강재별로는 철근, 형강 등 주로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조강류의 경우, 수요 감소폭이 1분기의 12.1%에서 2분기 6.5%, 하반기에 0.8%로 각각 둔화돼 전체적인 올 수요는 작년보다 5.0% 감소한 1,645만 1,00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철근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급증하며 회복세가 지속되지만 지난해 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관, 후판 등 판재류도 수요산업의 완만한 경기상승에 따라 수요가 2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서나 지난 1분기의 감소폭이 워낙 커 전체수요는 작년보다 2.8% 감소한 1,995만 9,000톤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스코연구소는 그러나 점점 악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경기가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줄 경우 철강재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근 재고가 늘어나고 건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중에는 수요감소가 불가피하나 하반기부터는 건설경기 회복에 따라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철근내수는 1분기 178만 3,000톤(전년동기비 4.1% 감소), 2분기 253만톤(-6.7%), 하반기 473만 7,000톤(-0.6%) 등 모두 905만톤으로 작년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과 생산은 각각 9.1%, 3.2% 감소한 25만3천톤, 926만8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 건설업 성장 3년째 '뒷걸음'

(2001. 3. 20)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총생산은 36조 8,818억원('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38조 3,058억원)보다 3.7% 감소했다. 건설업생산은 외환위기에 접어든 지난 '98년 8.6%가 줄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9년에 9.1%가 감소해 내리 3년째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이 내리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0.1%에서 '99년에 8.7%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8.2%로 하락했다. 지난해 건설업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주요인은 민간부분에서의 위축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 4.1%가 감소했다. 건물건설 투자의 경우 광공업용 건물건설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은 계속 부진해 1.8%의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농림수산토목은 늘어났으나 공항, 전력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5.8%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동북아 새 관문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1. 3. 29)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메워 조성한 1,700만평 부지 위에 들어선 인천공항은 착공 8년 4개월의 대역사 끝에 세계를 향해 나래를 폈다. 첫 착륙 여객기 OZ3423편이 도착한 9번 게이트에서는 탑승객 245명에게 꽃다발과 기념품 등을 주는 환영행사가 열렸으며 이 행사에는 오장섭 건교부장관과 최기선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개항 첫날 인천공항에서는 모두 287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며, 개항 초기에는 김포공항보다 약 50편이 많은 하루 평균 298편의 항공기

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인천공항은 연간 2,700만 명의 여객과 17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7만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는 연간 승객 1억명, 화물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된다.

특수시멘트 판로개척 나서

(2001. 4. 2)

양회업체가 콘크리트제품의 강도발현이나 균열방지 등의 효과를 첨가해주는 특수시멘트를 속속 개발,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다. 쌍용양회는 흙관 등 원심력제품과 교량 및 지하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발현을 돕는 팽창재를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팽창재를 주로 일본에서 수입, 사용해왔다. 쌍용이 순수 국산기술로 상품화에 성공한 팽창재는 kg당 가격이 일본산보다 400원정도 싸면서도 품질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쌍용은 일본 등 선진국에 역수출하기 위해 판로개척에도 나설 예정이다. 쌍용은 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방지 및 고강도를 가능케하는 저열시멘트도 개발, 시판 중이다. 쌍용은 가스공사가 시행중인 인천 LNG 탱크와 지하철 박스구조물 등에 13만여톤을 사용했으며 경인운하와 영종도 신공항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에도 저열시멘트 사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등 저열시멘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메이저는 무수축 그라우트와 발열콘크리트를 개발해 놓고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있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기자재와 콘크리트 구조를 일체화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관련 공사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플랜트 공사와 고속철도 공사가 활성화되면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동양은 내다보고 있다. 또 발열콘크리트는 산간지방 등에 적용될 경우 폭설에 따른 교통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콘크리

트 구조체의 균열방지와 강도발현을 위해 수십종에 이르는 특수시멘트가 개발돼 있다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각종 구조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수시멘트의 개발과 상품화 및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 성장률 4.3% 전망

(2001. 4. 12)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중 설비투자 및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3.9%로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회복과 정보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구조조정 진전 등으로 4.6%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현 경기상황에 대해 “지난해 9월 이후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어 하강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80년 이후 외환위기 시기까지 경기수축기의 평균 지속기간(17개월)만을 고려할 때 금년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반 경제지표는 2월 들어 하락세가 진정되거나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실물 경제지표의 둔화추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수출이 주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 경제의 침체, IT산업의 세계적인 둔화,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통관기준으로 지난해의 19.9%보다 낮은 6.0% 증가, 1,82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도 설비투자 감소 등 국내경기둔화와 유가하락, 수출부진에 따른 수출용 수입증가세 둔화로 작년의 34.0%보다 크게 낮은 7.1% 증가한 1,719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 단독주택도 재건축 허용

(2001. 4. 17)

건교부는 소규모 단독주택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

경개선을 위해 300~500가구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들도 조합을 결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독주택에 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키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지역내 단독주택에 이같은 재건축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건축과정에서의 주민동의율도 90%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설치 등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본격화되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차원의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OC 민자사업 정부보조 확대키로 (2001. 4. 17)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건설보조금 예산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역외인프라 펀드도 현재 1억달러에서 2억 5,000달러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의 건전화화를 위해 거시경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 운용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 억제와 적자 국채발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적자국채를 올해에는 2조 4,000억원 발행하고 오는 2003년에는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대규모 자연재해와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요건을 강화

하고 세계잉여금의 사용도 국제상환과 지방교부금 정산에 우선 상환하기로 할 방침이다.

저열시멘트 사용 콘크리트로 최대규모 연속 타설 (2001. 4. 30)

쌍용양회가 공급하는 저열시멘트가 투입된 매스 콘크리트 2만㎡가 인천 LNG 지하저장시설 건설현장에서 대형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여시간 동안이나 레미콘으로 연속 타설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는 레미콘 3,333대분에 해당하며 콘크리트 연속 타설로는 국내에서 최대규모로 현장에 설치된 배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생산, 믹서트럭을 통해 공사장으로 날라 쉽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현장 관계자가 밝혔다. 이같이 밤낮으로 연속해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타설 간격이 생길 경우 우려되는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이 LNG 기지의 탱크바닥 콘크리트에는 균열방지를 위해 기존에 쓰이던 프리쿨링이나 파이프쿨링, 액화질소의 사용방법 등을 적용하는 대신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저열시멘트를 적용해야 한다. LNG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균열이라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원료부터 타설방법까지 색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저열시멘트를 공급한 쌍용양회 관계자는 저열시멘트가 상품화된 이후 균열방지에 경제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공항철도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콘크리트는 타설할 때 물과 반응하면서 수화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여름철엔 70℃ 이상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매스(mass)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90℃를 넘는 경우도 생겨 균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LNG 기지와 같은 대형 구조물은 특수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emex, 태국의 Saraburi 사 인수 (2001. 5. 11)

지난 5월 11일, 시멕스(CEMEX)사는 대략적인 기업가치가 미화 7,300만달러에 상당하는 태국의 시멘트 제조업체인 Saraburi Cement사의 주식 99%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상기 거래는 제도권 투자자들이 23%, 시멕스가 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EMEX Asia Holdings Ltd.(이하 CAH)를 통해 매듭지어 질 것이며 Saraburi의 최대 주주인 Italian-Thai Development Public Co., Ltd.를 포함한 CAH와 판매 주주들은 최종 문서정리를 마무리했다. “태국 Saraburi에 대한 투자는 지리적으로 넓혀가려는 시멕스의 세계화 목표를 반영하며, 선택적 인수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멕스의 의도와도 부합한다.”고 시멕스의 기획 및 자금담당 부사장은 말했다. 시멕스의 장점은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부채없는 현금흐름이 꾸준하기 때문에 순부채가 감소되며, 자본구조가 강화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올해 말 이전에 순부채 대 실질영업순이익(EBITDA)의 비율을 2.7배 이하로 낮추려는 시멕스의 시도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방콕에서 북쪽 81마일에 위치하고 있는 Saraburi의 건식공정 공장은 70만톤의 년산능력을 지니고 있다. 시멕스는 대략 7,700만톤의 년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제3위 규모의 시멘트 생산업체로서 세계 최대의 시멘트 교역회사이며 백시멘트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현재 시멕스사는 4개 대륙의 계열사 운영을 통해 생산, 출하, 마케팅,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골재 및 크링카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76만평 허용 (2001. 5. 15)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장건축 허용 총량을 지난해보다 16%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76만평(251만 2,000㎡)은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난해 개별입지 공장건축 허용물량 253만㎡와 거의 맞먹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올해 공장총량 면적 결정이 지연되면서 1월 55만평을 허용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도 21만평을 추가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을 작년 집행량보다 16.2% 늘어난 89만평(294만 2,000㎡)으로 늘려 수도권정비 위원회에 상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도권 공장 신·증설 면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제도로 건교부장관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량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올 SOC예산 모두 집행하면 고용 43만명 유발 (2001. 5. 15)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14조 968억 원을 모두 집행할 경우 26조 6,563억원의 생산과 12조 2,549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43만 7,93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르면 지난 '98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할때 SOC투자의 생산유발계 수는 1.891,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69, 수입유발계수는 0.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C에 1조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 1조원의외에 간접적으로 8,910억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의미이다. 또 SOC에서 직접적으로 4,794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기초소재산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3,9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측면에서도 SOC 1조원 투자로 직접적으로 1만 8,775명의 취업이 유발되고 시멘트 등 관련업종에서 간접적으로 1만 2,291명의 취업이 유발되어 모두 3만 1,066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SOC예산은 14조 968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으며 항목별로는 철도가 15.6% 증

가한 2조 5,291억원이며 향만이 8.1% 늘어난 423억원이다. 한편 건설투자 가운데 건물건설투자는 '96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SOC 투자는 '98년에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한 후 '99년 6.5% 늘었다가 2000년에 다시 5.8% 감소했다.

|| 건교부, 주택저당증권 1조원 발행키로 (2001. 5. 18)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해 2,377억원 규모의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8,000억원 정도를 조성, 올해안에 1조원 정도의 저당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저당채권을 전액 국민주택기금재원으로 활용, 임대주택 및 소형아파트건설 등에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들어 건설경기침체로 주택건설도 위축세를 보임에 따라 이처럼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주택저당증권을 대거 발행,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1조 2,800억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이래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는 네 번째 발행으로 특히 이번 발행물량중 540억원을 국제금융공사가 매입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주택저당증권을 통한 외자유치로 기록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발행을 계기로 국내 주택저당증권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투자자의 국내 주택저당증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주택저당증권 발행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유통시장관련 제도 및 관련법령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일본, 레미콘·강재 수요 5%이상 감소 (2001. 5. 21)

일본의 건설자재산업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01년도 주요 건설자재 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설투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4.6%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자재 수요량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레미콘과 보통강은 작년에 비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시멘트, 레미콘, 골재, 쇄석, 목재, 보통강, 형강, 소형봉강, 아스팔트등 6개 자재, 9개 품목이다. 각 품목별로 2001년도의 수요량과 지난해의 실적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시멘트는 작년대비 4.8% 감소한 6,800만톤, 레미콘은 5.0% 감소한 14,200만㎡, 골재는 4.1% 감소한 43,700만㎡, 쇄석은 4.0% 감소한 25,400만㎡, 목재는 3.1% 감소한 1,675만㎡, 아스팔트가 4.2% 감소한 365만톤 등으로 전망됐다. 한편 주요건설자재 중 다른 자재에 비해 수요감소폭이 큰 편인 보통강은 5.2% 감소한 2,580만톤, 형강은 6.1% 감소한 660만톤, 소형봉강이 5.3% 감소한 1,050만톤으로 각각 예상됐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각 품목 모두 1990년 전반기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수요감소 추이가 뚜렷하며 지난 '99년, 2000년도에는 보통강, 형강, 소형봉강 등 3개 품목의 수요량이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했었지만 올해는 이마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에스디아아이, 자연친화 시멘트 개발 (2001. 5. 24)

광주지역 기업인 에스디아아가 화산활동의 부산물인 용암석을 이용해 기능성 시멘트를 내놨다. 이 시멘트는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것이 특징으로 압축강도가 뛰어나고 흡음과 단열, 항균, 냄새흡착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유해화학성분을 발산하지 않고 곰팡이나 세균 증식도 막아 준다. 에스디아아이는 단열과 방음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을 건축

미감재와 바닥재, 마감재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40kg짜리 제품을 일반 시멘트 가격의 2배, 황토 몰탈시멘트의 3~4배 수준에 판매한다. 회사측 관계자는 “무기안료를 첨가할 경우 페인팅이 필요없는 컬러시멘트가 된다”며 “온천사우나, 신축아파트의 마감재, 전원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디아이는 불순물 흡착과 혈액순환을 돕는 송이머드팩도 출시할 계획이다.

전경련, 통일시대엔 남한 반도체·컴퓨터, 북한 섬유·가전분야 유망 (2001. 5. 27)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통일 한국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발표한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에는 음식료품, 섬유제품, 봉제외복, 가죽신발, 유리·시멘트, 철강금속, 전기·전자 산업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서해안 안주공업지대에는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해주공업지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장비 제조업과 정밀기계등 첨단산업이, 내륙인 강계공업지대는 펄프와 종이제조업이 유리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동해안지역 청진공업지대는 금속산업 및 자동차 제조업이, 김책공업지대는 펄프 및 종이제조업이 비교우위를 보였으며 원산공업지대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등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으로 출판·인쇄, 장비·기계, 전기·전자업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면 석유정제, 담배제조, 조립금속, 플라스틱 분야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경제통합 이후 대북진출에 나설 경우 지역별·업종별 생산요소의 집약도와 기술수준, 투자규모를 고려해서 투자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고 안보 측면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신소재, 전자장비, 항공전자공학 분야 등의 진출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현재 북한경제현황으로 볼 때 연 50억 달러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9.7%가량 성장할 수 있으나 남한과의 협력이 없을 경우 투자가 농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북한 산업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북한 건설업 크게 성장 (2001. 5. 28)

북한의 건설업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확대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북한 GDP 잠정추계에 따르면 건설업생산은 토목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물건설도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도보다 13.6%가 증가했다. 북한 건설업은 지난 '99년 24.3%가 증가해 침체의 늪에서 탈피한데 이어 연속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북한 건설업생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도로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토목건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공장, 주택 등 건물건설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로확충 등 중점시책을 설정하여 경제회생에 주력했다고 밝히고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SOC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이 2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5.1%에서 '99년 6.1%, 지난해에는 6.9%로 계속 증가하였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건설업, 전기업, 광업 등의 경우 에너지난 해소와 SOC 투자확충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 전기가스, 수도업의 비중은 남한보다 높은 반면 공공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남한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남한의 6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2002년 월드컵 개최는 생산면에서
건설업에 가장 영향이 커
(2001. 6. 4)

내년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 면에서는 건설업, 고용면에서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월드컵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이 2조 5,032억원으로 전체(11조 4,797억원)의 21.8%를 차지, 15개 업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드컵의 고용유발효과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9만 8,688명으로 전체(35만 496명)의 28.2%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와 목욕, 이발, 법률 등을 망라한 기타 서비스업이 1조 3,084억원으로 전체(5조 3,357억원)의 24.5%, 수입유발효과는 건설, 관광 등 월드컵 수혜업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수요에 따라 가죽 및 화학제조업이 3,520억원으로 전체(9,100억원)의 38.7%로 가장 높았다. 1·2·3차 산업별 월드컵 효과를 보면 3차 산업이 생산의 59.8%,고용의 66.4%로 3개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가장 높았지만 수입유발효과는 건설업 수혜 등으로 2차 산업이 69.6%로 최고였다. 한편 월드컵을 통한 한·일 양국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간의 상호 수입유발효과는 1,628억원으로 우리 나라와 외국간의 전체 상호 수입유발효과 9,100억원의 17.9%에 그쳐 우리 나라의 수입 가운데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 약 25%에 비해 다소 작았다.

한일, 특수 몰탈 공동 개발
(2001. 6. 8)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리석 접착용 특수 몰탈(제품명 「레미탈」)이 개발됐다. 한일시멘트와 대림콘크리트는 공동연구를 통해 대리석을 바닷물에 부착시키는 시멘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시멘트와 모래, 특수 첨가제가 미리 배합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물론 혼합해 사용하는 드라이 몰탈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일반 시멘트에 몰과 모래만을 대충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부착강도가 떨어지고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등 고급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대리석 시공에 적절치 않았다. 한일측은 신제품이 기존 재래식 시공에 비해 부착 강도는 2배 이상, 압축강도는 1.5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두 업체의 공동개발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해당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적극 협력해 내놓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일시멘트는 현재 시멘트의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는 드라이 몰탈시장에서 「레미탈」이란 브랜드로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림콘크리트의 「미라톤」 역시 국내 인조대리석 시장의 선두 제품으로, 양사는 두 브랜드의 시장장악력에 의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측은 “제품의 상표는 개발 주체인 한일시멘트 브랜드 「레미탈」로 표시하는 대신 영업과 판매는 대림측이 주로 맡아 미라톤 제품과 패키지로 판매하거나, 필요하면 단독으로 판매할 것”이라며 “대림콘크리트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을 위해 두 제품을 패키지로 묶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